

勞 動 經 濟 論 集
第22卷 (1), 1999. 6, pp. 87~10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분석 : 외환위기 이전과의 비교*

남성일** · 이화영***

< 目 次 >

- | | |
|-------------|---------------------|
| I. 서 론 | IV. 실업자의 활동상태 변화 분석 |
| II. 실업자의 특성 | V. 실업기간의 실증분석 |
| III. 실업기간 | I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1996년 10월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단군 이래 최저라는 1.8%를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97년 말부터 실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97년 12월 현재 65만 8천 명이던 실업자 수는 불과 2개월

* 본 논문은 1988년 12월 한국노동경제학회 동계학술 세미나의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논평자 및 학회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익명의 심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자료사용을 허가해준 통계청 김민경 국장, 도움을 주신 노동부 라운정씨, 실증분석과 편집을 도와준 이진권, 오진애 두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노동부 사무관

후인 98년 2월에는 123만 5천명으로 증가하여 매일같이 거의 1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7월에는 실업자수 165만명, 실업률 7.6%를 기록하여 지난 30년래 가장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였다.

이같이 급격한 실업의 증가에 당면하여 정부를 비롯한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당장의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바빠서, 또는 실업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실업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차분히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급증하는 실업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할만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본 논문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98년 1월부터 4월까지 원자료를 실업자의 ID에 따라 연결하여 만든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이같은 패널자료는 현재까지의 자료중 유일한 것이며, 실업자의 개별적 특성 뿐 아니라 활동상태의 변화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¹⁾ 둘째, 외환위기 이후 발생하는 실업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98년 1-4월의 패널자료를 1년전인 97년 1-4월의 실업자 패널자료와 비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어떤 면에서 어느 만큼 실업의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98년 1-4월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97년 동기간의 실업자 특징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이유로 실업이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제 3절에서는 실업기간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즉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장기실업이 늘어나는지, 또는 어느 계층에서 장기실업이 많은지 등을 분석한다. 제 4절은 실업자의 활동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업을 증가가 실업자 유입의 증가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더 영향을 받는지 등을 분석한다. 제 5절은 계량적 방법을 이용한 실업기간의 실증분석으로서 고용보험이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실업보험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6절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토론한다.

1) 본 논문에 앞서 김대일(1997)이 1985-96년 기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패널을 구성하여 분석한 바 있고 신동균(1998)의 연구가 본 연구의 기초분석 이후에 나왔으나 모두 개인의 ID를 정확히 연결하여 만든 패널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와 구별된다.

II. 실업자의 특성

1998년 1~4월 기간중 한번이라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2,539천명으로 (남자:1,645천명, 여자:894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415천명에 비하여 79.4% 증가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91.3%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61.1% 증가하여 남자 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1 참조).

2,539천명 중 2,018천명이 지난 1년중 직장을 가진 경험이 있는 前職실업자이고 신규실업자는 521천명으로 실업자 중 전직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나타났다. (1997년에는 동기간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약 54%이었다. 다만 전직실업자의 정의가 1998년에는 더 포괄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7년과 98년의 전직실업자 비중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97년까지는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잠시라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는 신규실업자로 구분하였으나, 98년에는 이들 모두를 전직실업자로, 과거 취업경험이 전혀 없던 자만 신규실업자로 정의하였다.)

실업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저학력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비하여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이 두배 이상(115.0%)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의 23.0%에서 98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졸, 초급대졸 및 대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각각 71.8%, 46.7%, 71.9%의 증가를 보여 실업의 고통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에서 컸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성별교육정도별실업자분포

(단위:천명, %)

	97. 1~4월		98. 1~4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천명	(%)	천명	(%)	
전 체	1,415	(100.0)	2,539	(100.0)	79.4
<성 별>					
· 남 자	860	(60.8)	1,645	(64.8)	91.3
· 여 자	555	(39.2)	894	(35.2)	61.1
<교육정도별>					
· 중졸이하	326	(23.0)	701	(27.6)	115.0
· 고 졸	776	(54.8)	1,333	(52.5)	71.8
· 초 대 졸	135	(9.5)	198	(7.8)	46.7
· 대졸이상	178	(12.6)	306	(12.1)	71.9

실업자를 혼인상태별로 보면, 97년에는 미혼의 비중이 54.4%로 유배우자의 비중(41.1%)보다 높았으나 98년에는 이와 반대로 유배우자의 비중이 더 높아져 기혼자의 실업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보면, 97년에는 가구주가 전체 실업자 중 34.5%를 차지하였으나 98년에는 그 비중이 43.6%로 나타나 가구주 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5세 이상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실업자가 증가하여 젊은층보다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실업증가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49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1배의 실업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 연령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주요 퇴출 대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2 참조).

〈표 2〉 개인특성별 실업자 분포

(단위:천명, %)

	97. 1~4월		98. 1~4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륜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전 체	1,415	(100.0)	2,539	(100.0)	79.4
〈혼인상태별〉					
· 미 혼	770	(54.4)	1,141	(44.9)	48.2
· 유배우	581	(41.1)	1,267	(49.9)	118.1
· 기 타	64	(4.5)	131	(5.1)	104.7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	488	(34.5)	1,107	(43.6)	126.8
· 배우자	224	(15.8)	405	(16.0)	80.8
· 기 타	703	(49.7)	1,026	(40.4)	45.9
〈연 령 계 층〉					
· 15~19세	114	(8.1)	181	(7.1)	58.8
· 20~24세	373	(26.4)	495	(19.5)	32.7
· 25~29세	298	(21.1)	484	(19.1)	62.4
· 30~34세	156	(11.0)	286	(11.3)	83.3
· 35~39세	152	(10.8)	318	(12.5)	109.2
· 40~44세	121	(8.6)	254	(10.0)	109.9
· 45~49세	64	(4.6)	201	(7.9)	214.1
· 50~54세	56	(3.9)	142	(5.6)	153.6
· 55~59세	42	(3.0)	98	(3.9)	133.3
· 60세이상	38	(2.7)	79	(3.1)	107.9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40.9%), 신문잡지, 사업체방문 등의 순서로 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하여 자영업 준비나 취직시험을 통한 구직의 비중이 크게 감소(21.1%→9.6%)한 것은 IMF자금지원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신문잡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17.5%→33.5%)함으로써 직업정보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의 구직 비중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3~6개월의 구직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에 6개월 이상의 구직비중은 줄어들어 IMF자금지원 이후 실업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구직경로 및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단위:천명, %)

	97. 1~4월		98. 1~4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전 체	1,415	(100.0)	2,539	(100.0)	79.4
<구 직 경 로>					
· 직업소개소	16	(1.1)	63	(2.5)	293.8
· 취직시험	126	(8.9)	70	(2.8)	-55.6
· 신문·잡지	233	(16.4)	787	(31.0)	237.8
· 사업체 방문	197	(13.9)	392	(15.5)	99.0
· 친구친지 소개	664	(46.9)	1,039	(40.9)	56.5
· 자영업 준비	173	(12.2)	173	(6.8)	0.0
· 기 타	6	(0.5)	14	(0.5)	106.0
<구 직 기 간>					
· 3개월 미만	986	(69.7)	1,616	(63.7)	63.9
· 3~6개월	305	(21.6)	752	(29.6)	146.6
· 6~12개월	99	(7.0)	151	(6.0)	52.5
· 12개월 이상	25	(1.8)	19	(0.8)	-24.0

전직실업자의 사업장 특성을 살펴보면 전직실업자의 59.2%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으며 73.6%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우선 영세규모 사업장의 실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32천명이 실직하여 전년도에 10천명보다 3배 이상 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영세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에서의 실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前산업별로 보면 97년에는 제조업(25.5%), 도소매업(21.7%), 건설업(16.4%), 음식숙박업(11.2%)의 순서로 실업자 비중이 컸으나, 98년에는 실업자의 前산업별 비중이 건설업(26.5%), 제조업(24.3%), 도소매업(17.2%), 그리고 음식숙박업(11.4%)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97년의 126천명에서 98년에는 536천명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건설경기의 부진이 반영 되었음을 보여준다. 前직업별로는 기능공 및 단순노무직의 실업자 증가가 많았으며, 또한 고위 임직원, 전문가의 실업 증가율도 각각 2.9배, 3.7배로 매우 높아 직업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前 산업 · 직업 실업자 분포

(단위:천명, %)

	97. 1~4월		98. 1~4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륜
<산 업>	769	(100.0)	2,018	(100.0)	162.4
· 농림어업	7	(0.9)	22	(1.1)	214.3
· 제조업	196	(25.5)	491	(24.3)	150.5
· 건설업	126	(16.4)	536	(26.5)	325.4
· 도소매업	167	(21.7)	347	(17.2)	107.8
· 음식숙박업	86	(11.2)	230	(11.4)	167.4
· 운수창고통신	22	(2.9)	81	(4.0)	268.2
· 금융보험	16	(2.1)	33	(1.6)	106.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1	(6.7)	105	(5.2)	105.9
· 기 타*	97	(12.7)	174	(8.6)	79.4
<직 업>					
· 고 위 임 직 원	15	(1.9)	44	(2.2)	193.3
· 전 문 가	9	(1.2)	33	(1.7)	266.7
· 준전문가·기술공	95	(12.3)	177	(8.8)	86.3
· 사 무 직 원	107	(13.9)	224	(11.1)	109.3
· 판 매 사 원	196	(25.5)	447	(22.1)	128.1
· 농 업 숙 련 공	6	(0.8)	15	(0.7)	150.0
· 기 능 공	148	(19.3)	533	(26.4)	260.1
· 기 계 조 작 원	88	(11.4)	234	(11.6)	165.9
· 단 순 노 무 직	105	(13.7)	311	(15.4)	196.2

前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와 일용근로자 등 불안정 임금근로자의 실업비중이 각각 36.1%, 26.8%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실업

이 126천명에서 542천명으로 4.3배 증가함으로써 IMF의 영향을 이들 불안정 취업 계층이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별로는 폐업, 해고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의 비중이 77.8%로 전년도의 30.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보수 등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 IMF 시대를 맞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업, 해고로 인한 실업은 67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8배 증가하였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실업은 89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9.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前 종사상지위 및 이직사유별 실업자 분포

(단위:천명, %)

	97. 1~4월		98. 1~4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천명	(%)	천명	(%)	
<종사상 지위>	769	(100.0)	2,018	(100.0)	162.4
· 상 용	200	(26.0)	451	(22.3)	125.5
· 임 시	304	(39.5)	729	(36.1)	139.8
· 일 용	126	(16.3)	542	(26.8)	330.2
· 고 용 주	55	(7.1)	109	(5.4)	98.2
· 자 영 자	78	(10.1)	160	(7.9)	105.1
· 무급가족종사자	6	(0.9)	28	(1.4)	366.7
<이 직 사 유>					
· 개인 가족 사정	156	(20.3)	212	(10.5)	35.9
· 보수 등 불만족	299	(38.9)	203	(10.1)	-32.1
· 폐업 · 해고	139	(18.1)	674	(33.4)	384.9
· 정년 퇴직	4	(0.5)	8	(0.4)	100.0
· 사업부진	95	(12.4)	895	(44.4)	842.1
· 기타	76	(9.9)	26	(1.2)	-65.8

Ⅲ. 실업기간

98년 1~4월 기간에 실업경험자 2,539천명을 실업기간별로 보면 97년에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 정도(49.6%)가 1개월 실업이었으며 3개월 이상 실업은 20.6%에 불

과하였으나 98년에는 1개월 실업의 비중은 44.2%로 줄어든 반면 3개월 이상 실업의 비중은 26.7%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개월 실업자의 비중이 남,녀 각각 41.0%, 50.1%로 전년도의 46.9%, 53.7%에 비하여 줄어든 반면에, 3개월 이상 실업자는 남자 29.1%, 여자 22.4%로 전년도의 22.5%, 17.7%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의 장기 실업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실업자중 3개월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2%인 반면에 중졸이하와 고졸자의 3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각각 24.0%, 24.7%로 고학력자일수록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성별, 교육정도별 실업기간별 실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97. 1~4월				98. 1~4월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1,415 (100.0)	702 (49.6)	421 (29.8)	292 (20.6)	2,539 (100.0)	1,122 (44.2)	738 (29.1)	679 (26.7)
· 남 자	860 (100.0)	403 (46.9)	263 (30.6)	194 (22.5)	1,644 (100.0)	674 (41.0)	492 (29.9)	479 (29.1)
· 여 자	555 (100.0)	298 (53.7)	159 (28.6)	98 (17.7)	894 (100.0)	448 (50.1)	246 (27.5)	200 (22.4)
<교육정도>								
· 중졸이하	326 (100.0)	170 (52.3)	100 (30.6)	55 (17.1)	701 (100.0)	319 (45.5)	214 (30.5)	168 (24.0)
· 고 졸	776 (100.0)	408 (52.6)	219 (28.2)	149 (19.2)	1,333 (100.0)	608 (45.6)	382 (28.6)	343 (24.7)
· 초대졸	135 (100.0)	51 (37.8)	51 (37.8)	33 (24.4)	198 (100.0)	77 (38.7)	62 (31.1)	60 (30.2)
· 대졸이상	179 (100.0)	72 (40.5)	52 (29.3)	54 (30.2)	306 (100.0)	118 (38.5)	81 (26.3)	107 (35.2)

* () : 구성비

가구주인 실업자의 실업기간 분포를 보면 1개월 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3개월 이상 장기실업 비중이 전년도의 17.9%에서 27.6%로 크게 늘어났다. 연령계

층별로는 45~54세 실업자의 장기실업 비중이 97년에는 18~19%이었으나 98년에는 28~29%로 10%p나 증가하여 45세 이상 장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7 참조).

<표 7>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계층별 실업기간별 실업자 분포

(단위 :천명, %)

	97. 1~4월				98. 1~4월			
	전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체	1,415 (100.0)	702 (49.6)	421 (29.8)	292 (20.6)	2,539 (100.0)	1,122 (44.2)	738 (29.1)	679 (26.7)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	488 (100.0)	252 (51.6)	149 (30.5)	87 (17.9)	1,107 (100.0)	473 (42.7)	328 (29.7)	306 (27.6)
· 배우자	224 (100.0)	130 (57.9)	63 (28.0)	31 (14.1)	405 (100.0)	210 (51.9)	111 (27.4)	84 (20.7)
· 기타	703 (100.0)	320 (45.5)	210 (29.9)	173 (24.6)	1,026 (100.0)	439 (42.8)	298 (29.1)	288 (28.1)
<연령계층>								
· 15~19세	114 (100.0)	63 (55.1)	35 (30.2)	17 (14.7)	181 (100.0)	90 (49.8)	49 (27.3)	41 (22.9)
· 20~24세	373 (100.0)	176 (47.2)	111 (29.8)	86 (23.0)	495 (100.0)	225 (45.5)	134 (27.0)	136 (27.5)
· 25~29세	298 (100.0)	139 (46.6)	95 (32.0)	64 (21.4)	484 (100.0)	198 (40.9)	154 (31.9)	131 (27.2)
· 30~34세	156 (100.0)	91 (58.5)	38 (24.2)	27 (17.3)	286 (100.0)	136 (47.5)	74 (25.9)	76 (26.6)
· 35~39세	152 (100.0)	72 (47.0)	42 (27.8)	38 (25.2)	318 (100.0)	147 (46.2)	87 (27.4)	84 (26.4)
· 40~44세	121 (100.0)	63 (52.1)	33 (27.6)	24 (20.3)	254 (100.0)	103 (40.4)	85 (33.5)	66 (26.1)
· 45~49세	64 (100.0)	32 (48.9)	21 (32.0)	12 (19.1)	201 (100.0)	86 (43.0)	58 (28.9)	56 (28.1)
· 50~54세	56 (100.0)	25 (44.1)	21 (38.3)	10 (17.6)	142 (100.0)	58 (40.7)	43 (30.2)	41 (29.1)
· 55~59세	42 (100.0)	22 (52.4)	14 (33.7)	5 (13.9)	98 (100.0)	41 (42.2)	32 (32.9)	24 (24.9)
· 60세이상	38 (100.0)	19 (50.0)	11 (28.9)	8 (21.1)	79 (100.0)	38 (47.0)	21 (26.5)	21 (26.5)

*() : 구성비

〈표 8〉 前산업 · 직업별 실업기간별 실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97. 1~4월				98. 1~4월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769 (100.0)	366 (47.6)	237 (30.8)	166 (8.7)	2,018 (100.0)	894 (44.3)	598 (29.6)	526 (26.1)
<前 산업>								
· 농림어업	7 (100.0)	2 (28.6)	2 (28.6)	3 (42.8)	22 (100.0)	8 (39.2)	6 (28.5)	7 (32.3)
· 제조업	196 (100.0)	92 (47.1)	61 (31.2)	42 (21.7)	491 (100.0)	216 (44.0)	130 (26.6)	144 (29.4)
· 건설업	126 (100.0)	61 (48.3)	40 (31.9)	25 (19.8)	536 (100.0)	237 (44.2)	172 (32.1)	127 (23.7)
· 도소매업	167 (100.0)	78 (47.0)	49 (29.3)	40 (23.7)	347 (100.0)	144 (41.6)	112 (32.2)	91 (26.2)
· 음식숙박업	86 (100.0)	43 (50.2)	22 (25.8)	21 (24.0)	230 (100.0)	117 (50.7)	55 (24.0)	58 (25.3)
· 운수창고통신업	22 (100.0)	9 (38.1)	11 (47.7)	3 (14.2)	81 (100.0)	32 (39.9)	27 (32.8)	22 (27.3)
· 금융보험업	16 (100.0)	5 (31.3)	7 (43.7)	4 (25.0)	33 (100.0)	14 (43.4)	8 (24.7)	11 (31.9)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1 (100.0)	25 (49.4)	15 (28.4)	11 (22.2)	105 (100.0)	45 (43.1)	34 (32.2)	26 (24.7)
· 기 타	97 (100.0)	51 (52.0)	30 (30.4)	17 (17.6)	174 (100.0)	80 (45.8)	54 (31.1)	40 (23.1)
<前 직업>								
· 고위임직원	15 (100.0)	7 (48.0)	5 (33.8)	3 (18.2)	44 (100.0)	17 (38.0)	16 (36.3)	11 (25.7)
· 전문가	9 (100.0)	5 (55.8)	2 (20.6)	2 (23.6)	33 (100.0)	15 (44.4)	7 (21.8)	11 (33.8)
· 준전문가	95 (100.0)	45 (47.5)	34 (36.3)	15 (16.2)	177 (100.0)	75 (42.1)	48 (27.3)	54 (30.6)
· 사무직원	107 (100.0)	50 (46.6)	28 (26.2)	29 (27.2)	224 (100.0)	93 (41.5)	67 (30.0)	64 (28.5)
· 판매사원	196 (100.0)	94 (48.2)	55 (28.0)	47 (23.8)	447 (100.0)	216 (48.3)	125 (28.0)	106 (23.7)
· 농업숙련공	6 (100.0)	3 (46.1)	1 (11.2)	3 (42.7)	15 (100.0)	5 (36.9)	3 (23.8)	6 (39.3)
· 기능공	148 (100.0)	72 (48.6)	49 (32.8)	28 (18.6)	533 (100.0)	239 (44.8)	170 (31.9)	124 (23.3)
· 기계조직원	88 (100.0)	41 (46.7)	28 (31.8)	19 (21.5)	234 (100.0)	97 (41.5)	69 (29.5)	68 (29.0)
· 단순노무직	105 (100.0)	49 (46.5)	35 (33.6)	21 (19.9)	312 (100.0)	138 (44.2)	92 (29.5)	82 (26.3)

前산업별로 보면 前職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중 3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97년의 21.7%, 19.8%에서 98년에는 각각 29.4%, 23.7%로 증가하여 제조업, 운수창고통신 및 금융보험업에 종사하였던 취업자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前직업별로 보면 고위관리직 종사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97년 18.2%에서 98년 25.7%로 증가하였고, 전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97년 16.2%에서 98년 30.6%로 크게 증가하여 이른바 고급직종에 종사하였던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9> 前종사상지위·이직사유별 실업기간별 실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97. 1~4월				98. 1~4월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1개월	2개월	3개월이상
전 체	1,415 (100.0)	702 (49.6)	421 (29.8)	292 (20.6)	2,539 (100.0)	1,122 (44.2)	738 (29.1)	679 (26.7)
<종사상지위>								
· 상 용	200 (100.0)	93 (46.5)	59 (29.7)	48 (23.8)	451 (100.0)	191 (42.3)	129 (28.7)	131 (29.0)
· 임 시	304 (100.0)	146 (48.0)	94 (30.9)	64 (21.1)	729 (100.0)	340 (46.6)	199 (27.3)	190 (26.1)
· 일 용	126 (100.0)	58 (46.0)	45 (35.7)	23 (18.3)	542 (100.0)	242 (44.7)	172 (31.8)	127 (23.5)
· 고 용 주	55 (100.0)	24 (43.6)	19 (34.6)	12 (21.8)	109 (100.0)	40 (36.4)	37 (33.6)	33 (30.0)
· 자 영 자	78 (100.0)	43 (55.3)	19 (23.8)	16 (20.9)	160 (100.0)	64 (40.3)	55 (34.3)	41 (25.4)
· 무급가족종사자	7 (100.0)	3 (46.9)	1 (16.5)	2 (36.6)	28 (100.0)	17 (61.6)	7 (23.8)	4 (14.6)
<이 직 사 유 >								
· 개인가족사정	156 (100.0)	66 (42.3)	51 (32.5)	40 (25.2)	212 (100.0)	104 (48.9)	55 (25.8)	54 (25.3)
· 보수등불만족	299 (100.0)	143 (47.8)	87 (29.1)	69 (23.1)	203 (100.0)	90 (44.3)	54 (26.4)	59 (29.3)
· 폐업·해고	139 (100.0)	77 (55.4)	42 (30.2)	20 (14.4)	674 (100.0)	284 (42.2)	207 (30.7)	183 (27.1)
· 정년퇴직	4 (100.0)	1 (33.3)	1 (33.3)	1 (33.3)	8 (100.0)	3 (37.5)	1 (12.5)	4 (50.0)
· 사업부진	95 (100.0)	46 (47.9)	29 (30.2)	21 (21.9)	894 (100.0)	398 (44.5)	276 (30.9)	220 (24.6)
· 기 타	76 (100.0)	33 (43.3)	27 (35.9)	16 (20.8)	26 (100.0)	15 (53.8)	6 (23.1)	6 (23.1)

*() : 구성비

前중사상지위별로 보면 IMF 이후 급증한 도산의 결과로 前職 고용주중 장기실업의 비중은 97년 21.8%에서 98년에는 30.0%로 증가하였다. 또한 前職 상용근로자의 장기실업 비중도 97년 23.8%에서 98년에는 29.0%로 증가하여 고용주와 상용근로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을 그만 둔 이직사유별로 보면 폐업·해고로 인한 실업자중 3개월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97년도에 14.4%에 불과하였으나 98년에는 27.1%로 크게 증가하여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장기실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표 9 참조).

IV. 실업자의 활동상태 변화 분석

일정시점에서 실업자의 수는 저장(stock)이지만 일정기간을 통하여 실업자로 들어오는 유입과 실업상태를 탈피하는 유출을 통하여 실업자 수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입과 유출이라는 유량(flow)분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Layard, Nickell and Jackman(1991)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업율을 진입율과 평균실업기간의 곱으로 분해한다.

$$(3-1) \quad \frac{U}{N} \equiv \frac{E}{N} \cdot \frac{U}{E}$$

where, U=실업자수, N=경제활동인구, E=실업 진입자수.

실업으로의 진입자(E)와 이탈자(X)의 수가 같은 평상상태에서는 윗 식은 (실업율 = 진입율 × 평균실업기간)으로 표시된다.

이 식에 따르면 실업율의 변화는 진입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과 평균실업기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표 10>은 97년 및 98년의 1~5월 기간 중 실업상태로의 진입 및 이탈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0>을 보면 97년의 경우 1~5월 사이 실업으로의 진입과 이탈이 거의 일치하여 1월과 5월의 실업자수가 차이가 없는 반면 98년의 경우 월평균 563천 명이 진입한 반면 413천 명이 이탈하여 매월 평균 151천 명씩 실업자가 늘어났다. 식 (3-1)에 따른 실업율 변화를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98년은 97년에 비하여 실업으로의 진입이 월등히 많아서 실업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 Layard, Nickell and Jackman(1991)에서 N은 취업자 수로 정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업율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N은 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한다.

98년 1~5월 기간 중의 실업률 변화는 다른 특색을 보인다. 즉 통기간 중 실업으로의 진입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데 반하여 평균 실업기간(U/E)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98년 1~5월 기간 중 실업률의 증가는 신규 실업 진입의 증가보다는 이탈의 감소에 따른 평균실업기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실업상태로의 진입 및 이탈현황

(단위 : 천명, %)

월간	E	X	H	ΔU	U	U/N	E/N	U/E	X/U_{-1}	H/U_{-1}
98년										
12-1					888	4.5				
1-2	640	324	209	316	1,204	5.9	3.1	1.9	36.4	23.5
2-3	598	431	315	167	1,371	6.5	2.8	2.3	35.7	26.2
3-4	494	432	321	62	1,433	6.7	2.3	2.9	31.5	23.4
4-5	521	463	353	58	1,492	6.9	2.4	2.9	32.3	24.6
평균	563	413	300	151	1,278	6.5	2.7	2.5	34.0	24.4
97년										
12-1					550	2.6				
1-2	284	169	112	115	665	3.2	1.4	2.3	30.7	20.3
2-3	386	326	250	60	725	3.4	1.8	1.9	49.0	37.6
3-4	227	348	272	-121	603	2.8	1.1	2.6	48.0	37.4
4-5	171	224	174	-53	550	2.5	0.8	3.2	37.1	28.9
평균	267	267	202	0	636	3.0	1.3	2.4	41.2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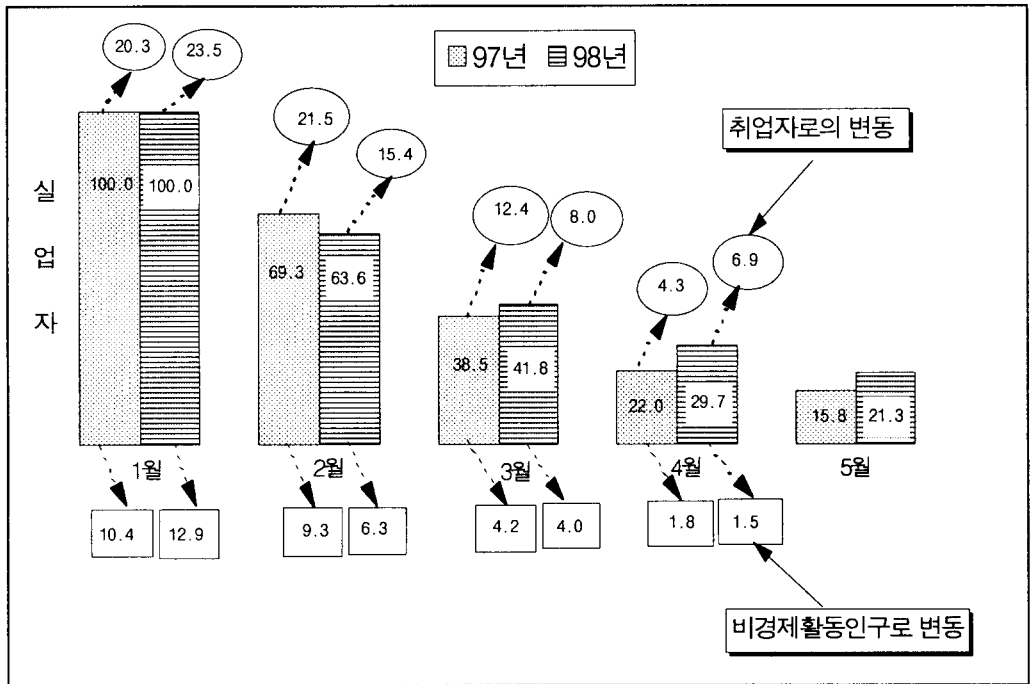
주) E = 실업진입자 ; X = 실업이탈자 ; H = 취업으로 인한 실업이탈자
 U = 실업자 ; U/N = 실업률 ; E/N = 진입률 ; =전기의 실업자
 U/E = 평균 실업기간 ; X/U_{-1} = 이탈률 ; H/U_{-1} = 취업률

이같은 결론은 실업 이탈률($X/U-1$)을 점검함으로써 재확인될 수 있다. 전년도의 평균 이탈률 41.2%에 비하여 98년의 평균이탈률은 34%에 그치며 그나마 1·2월 중의 36.4%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4월중에는 이탈률이 31.5%까지 낮아졌다. 한편 실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취업으로의 이탈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탈로 나눌 수 있는 바, 취업으로의 이탈률은 98년에는 평균 24.4%로서 97년의 31%에 비하여 6.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97년에는 100명의 실업자 중 한 달에 31명씩 취업된 반면 98년에는 24명씩만 취업되어 실업상태를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업자로부터의 이탈상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98년 1월 실업자가 5월에 이르기까지 매달 어느 정도씩 취업 혹은 비경제활동으로 이탈하였는지를 97년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97년에는 100명의 실업자중 4개

월 후인 5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은 15.8명이었으나 98년에는 21.3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장기실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97년에 비하여 취업자로의 이탈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탈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즉 97년에는 1~5월 기간중 25.7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였으나 98년에는 24.7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였다. 이는 한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바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는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반통념과 달리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³⁾

<그림 1> 1월 실업자의 활동상태 변동 추이



이와 같은 활동상태 변화의 특징들은 4월 실업자의 활동상태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11>에 의해서도 재확인된다. <표 11>은 실업자들이 한달 동안 어떻게 활동상태를 바꾸었는지 실업기간에 따라 장·단기 실업자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대로 97년에 비하여 98년의 취업율은 낮을 뿐 아니라 비경활인구로의 이탈율도 낮아서 실업자로 남는 비율이 평균 67.7%로 전년도의 62.6%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다. 또한 <표 11>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3) 물론 실망실업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97년 1-5월에 비하여 98년 같은 기간중에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20-30만명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취업할 확율이 낮은 반면 실업자로 계속 남을 확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98년 4월에 새로 실업자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5월까지 한달 동안 약 36%가 실업에서 이탈한 반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이탈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표 11> 4월 실업자의 실업기간별 활동상태변화의 비교

실업기간	97. 4 → 5월				98. 4 → 5월			
	전체	취업자	비경활	실업자	전체	취업자	비경활	실업자
1개월	202 (100.0)	63 (31.1)	17 (8.4)	122 (60.3)	438 (100.0)	118 (26.9)	40 (9.1)	280 (63.9)
2개월	200 (100.0)	66 (33.0)	18 (9.0)	116 (58.0)	425 (100.0)	96 (22.6)	30 (7.1)	298 (70.1)
3개월	81 (100.0)	22 (27.1)	6 (7.4)	53 (65.4)	307 (100.0)	77 (25.1)	27 (8.8)	204 (66.4)
4개월	121 (100.0)	24 (19.9)	10 (8.3)	87 (71.9)	264 (100.0)	62 (23.5)	13 (4.9)	189 (71.6)
전체	604 (100.0)	175 (28.9)	51 (8.4)	378 (62.6)	1,434 (100.0)	353 (24.6)	110 (7.7)	971 (67.7)

이상의 활동상태에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기초분석 발표⁴⁾에 뒤이어나온 신동균(1998)의 98년 1-7월 기간중 노동력 이동상태 분석의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신동균(1998)은 실업에서 비경활로 빠지는 실망실업의 크기보다는 비경활에서 실업으로 진입하는 추가구직자효과(added worker effect)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98년도 실업문제에서의 중요한 현상이 실망실업이 아니라 추가구직자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⁵⁾ 본 연구는 98년의 현상을 97년과 비교함으로써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김대일(1997)의 1990-96년기간의 경제활동조사 패널에 근거한 연구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장기화 추세의 요인으로는 노동공급에 있어서 경제활동성 증가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 저학력 및 장년층을 중심으로한 계층의 취업을 감소등을 들고 있다. IMF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본 연구는 장년층 취업을 감소는 확인하지만 실업의 장기화는 고학력층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김대일(1997)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4) 1998년 7월 11일자 통계청 보도참고자료.

5) 신동균(1998)에 따르면 98년 1-7월 기간중 실업→비경활인구로 전환한 숫자는 435천명인데 반하여 비경활→실업으로 전환한 숫자는 1158천명으로 두배가 훨씬 넘는다.

V. 실업기간의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제3절의 기초분석에서 논의한 실업기간이 각 요인별로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실증분석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97년 8월부터 이를 위하여 본 절은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실업기간을 주요 결정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실업보험은 더미변수로 들어간다. 둘째로 실업보험의 최대 수급기간이 이탈율(hazard rate)과 실업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해자드 함수를 추정한다.

먼저 실업기간의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5-1) \quad Y = \beta_0 + \beta_1 AGE + \beta_2 EDU + \beta_3 DSEX + \beta_4 DMAR + \beta_5 DUI + \beta_6 DINV + \varepsilon$$

Where Y=달수로 표시된 실업기간, AGE=연령, EDU=교육연수,

DSEX=성별더미(남성은 1, 여성은 0),

DMAR=혼인더미(미혼은 1, 기혼은 0)

DUI=실업급여 더미(실업급여 수급자는 1, 비 수급자는 0)

DINU=비자발 실업더미 (비자발적 실업자이면 1, 자발적 실업자이면 0)

이 모형에서 탐색이론의 함의에 따르면 실업급여 더미의 계수추정량 β_5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이고 구직기간을 연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와 취업형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더미의 값을 부여하였다. 즉 전직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및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실업급여 더미의 값을 1로 하였다.⁶⁾ 따라서 실업급여더미 변수는 사업장 규모의 효과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모형은 97년 데이터와 98년 데이터에 대해 같이 추정되므로 97년 추정치와 98년 추정치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실업보험 시행의 효과를 반영

6) 구체적으로 '98.7.1. 2차 개정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는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었다.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제한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더미의 값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발적/비자발적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의 예에 관해서는 노동부(1999) p. 219 참조.

한다 할 수 있겠다.

<표 12>는 추정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연령효과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수록 실업기간이 길어진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제안의 도달율이 감소함으로써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Mackey and Reid(1972), Lancaster(1979)등의 분석과 일치한다. 다만 98년 이 결과는 97년의 결과만큼 뚜렷하지 못하다. 교육 역시 실업기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실업의 함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실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절의 기초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2> 실업기간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98년 표본		97년 표본	
	계수 추정치	t 값	계수추정치	t 값
상 수	1.8674	6.12**	0.4250	1.11
AGE	0.0076	1.53	0.0364	4.16**
EDU	0.0374	2.58**	0.0626	5.22**
DSEX	0.3032	3.57**	0.48.9	3.32**
DMAR	0.2067	1.85*	0.9929	5.16**
DUI	0.3940	3.25**	0.4769	2.35*
DINV	-0.2018	-2.29*	-0.5778	-3.20**
$R^2 = 0.014$		$R^2 = 0.056$		
N = 3090		N = 1346		
$\bar{Y} = 2.74$		$\bar{Y} = 2.87$		

** 단측 검정시 1% 유의수준

* 단측 검정시 5% 유의수준

실업급여 더미는 양의 추정치를 보임으로써 일견 탐색실업이론의 함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97년의 결과와 98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DUI의 효과는 더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97년 결과의 DUI의 계수 추정치는 0.4769인데 반하여 98년의 결과는 0.3940으로 줄어들었다. 만일 DUI변수가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효과가 97년과 98년에 동일하다면 98년 데이터에 나타난 실업급여 지급의 실제효과는 마이너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급여지급이 실

업기간을 늘리는 효과는 적어도 현재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발적 실업의 탐색적 성향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97년과 98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자발적 실업의 실업기간 단축효과가 매우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흥미롭다. 예컨대 97년의 경우 자발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17.1일 더 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98년의 경우 고작 6.2일 더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을 의미한다.

위의 회귀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종속변수인 실업기간이 불완전한 실업기간(현재 실업중인 자의 경우 현재까지의 실업기간만 계산되므로)을 포함하고 있어 잘린 자료(censored data)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귀분석은 추정량의 편의(bias)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추정의 결과는 보다 개선된 추정 결과에 대한 비교근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잘린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실업으로부터의 이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해자드함수(hazard function)를 추정한다. Devine and kiefer(1991)의 방법론에 따라 실업기간의 확률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F(t)$ 및 $f(t)=dF(t)/dt$ 로 정의하면 생존함수(survivor function)는 $S(t)=1-F(t)$ 로 표시되고 해자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2) \lambda(t) = -d \ln S(t) / dt = f(t) / s(t)$$

그리고 t 기까지의 이탈율의 합인 축적 해자드(integrate hazard)는 다음과 같다.

$$(5-3) \Lambda(t) = \int_0^t \lambda(u) du$$

Devine and kiefer(1991)는 표본의 실업기간이 완전한 경우와 잘린(censored)경우가 섞여 있는 표본의 해자드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됨을 보인다.⁷⁾

$$(5-4) L(\theta) = \sum_{i=1}^n d_i \ln \lambda(t_i, \theta) - \sum_{i=0}^n \Lambda(t_i, \theta)$$

여기에서 d_i 는 더미변수로써 $d_i=1$ 이면 완전한 실업기간을, $d_i=0$ 이면 잘린 실

7) Devine and Kiefer(1991), pp.38~40.

업기간을 의미하고 t_i 는 실업기간을 나타낸다. 이제 해자드 함수가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⁸⁾

$$(5-5) \lambda(t_i, \theta) = \exp(x_i' \beta)$$

여기에서 x 는 설명변수 벡터, 그리고 β 는 계수벡터이다. (5-5)는 (5-4)에 대입된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5-6) L(\beta) = \sum_{i=0}^n [d_i \cdot (x_i' \beta) - t_i \cdot \exp(x_i' \beta)]$$

우리는 식 (5-6)을 최우추정법에 의하여 추정함으로써 각 x 변수들의 실업이탈율 λ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5-6)의 추정에 포함되는 x 변수들은 LAGE(=lnAGE), DSEX, DMAR, DINV 및 LTT이다. 여기에서 LTT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의 자연로그값이다. 실업급여의 최대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즉 25세 미만은 1달 25~30세 미만은 2달, 30~50세 미만은 3달, 50세이상은 4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수급기간 변수는 연령변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 점을 반영하여 우리는 두 변수를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한 모형(Model I)과 연령변수를 제외한 모형(Model II)을 추정한다. 탐색이론의 함의는 실업급여의 최대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이탈율은 줄어드는 것이므로 β 값은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14>는 해자드 함수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이탈율이 낮고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며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이탈율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는 앞의 실업기간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이 이탈율에 미치는 효과가 97년과 98년의 결과가 다른바 97년 표본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이탈율을 높이고 따라서 실업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 표본에서는 반대로 비자발적 실업이 이탈율을 낮추고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의 실업은 탐색실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98년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기적 실업내지 구조적 실업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의 효과는 예상대로 연령변수가 함께 포함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연령변수가 포함된 경우 연령은 실업이탈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최대수급기간은 비록유의성은 없지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 여기에서 채택한 지수함수의 형태는 시간불변(time invariant)의 형태로서 다소 제약적이다.

탐색이론의 함의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양의 영향이란 최대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이탈율이 길어지고 실업기간은 짧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령변수와와의 다중공선성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연령변수를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이론적 함의대로 최대수급기간이 이탈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8년의 결과는 97년의 결과에 비하여 유의성이 없어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이탈율이나 실업기간에 현재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실업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위화위기 이전인 97년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98년 1~4월 기간중에 진행된 급격한 실업의 증가는 외환위기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적 실업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의 실업 증가, 고위 임직원 및 전문직의 급격한 실업증가 등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자료가 98년 4월까지 자료이므로 그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중장년층, 그리고 가구주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구직경로로써 신문, 잡지, 직업소개소 등 직업정보망을 과거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실업기간은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고 급직종일수록 길어지며, 비자발적 실업자일수록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실업이 장기화되는 까닭은 전년도에 비하여 재취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는 아직까지는 실업기간을 늘리거나 실업이탈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실업급여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얻었으므로 앞으로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9)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비자발적 실업자이어야 하므로 표본은 비자발적 실업자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실제로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점은 감안할 때 폐업이나 해고로 인한 실업자만을 표본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제약적일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자만을 표본으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4>에 나와 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다만 최대수급기간의 효과가 97년에는 음으로 나타났으나 98년에는 이탈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론적 함의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요약을 통해 보건대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당분간 혼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 약화되더라도 구조적 실업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임시적 일용직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실업대책은 실업율을 낮추는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민간으로의 취업을 구축(crowding out)하여 장기적으로 불안정 취업을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98년 1~4월 기간중의 실업에 분석을 국한하였으므로 외환위기이후 현재까지의 실업특성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 이후 실업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 실업에 대한 실증연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가치는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일, “실업장기화의 효과분석”, KDI 정책연구, 1997, 제4호.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1999.
라운정, 『우리나라 실업자의 특성분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신동균, “최근의 실업구조 분석”,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pp. 32-41, 한국노동연구원, 1998.
Devine T., and Nicholas M. Kiefer, Empirical Labor Economics: The Search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Lancaster, T., “Econometric Methods fo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Econometrica*, vol.47, No.4, 1979, pp. 939-956.
Layard R., S. Nickell and R. Jackman,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Labor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Mackay, D.I. and L.Reid, “Redundancy, Unemployment, and Manpower Policy”, *Economic Journal*, vol.82. No.328, 1972, pp. 1256-1272.